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Series 7

# 핵심 요약 성경 해석법

정동수 · 김문수 · 김재욱 · 조지 켈러 지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딤후2:15)

 사랑침례교회  
[www.cbck.org](http://www.cbck.org)

비매품

# 목 차



성경 해석 방법 .....	2
위험한 QT .....	14
마태복음 24장의 올바른 해석 .....	19
동방의 독수리와 14만 4천 .....	31
성경적 세대주의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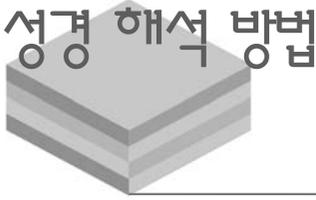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인 구원부터 재림의 소망과 부활, 천국과 지옥 교리까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크리스천의 출생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 책자는 ‘성경 해석 방법’(김문수 지음)과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한 QT’(김재욱),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예를 보여 주는 ‘마태복음 24장의 올바른 해석’(김문수),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단이 생기는 과정을 보여 주는 ‘동방의 독수리와 14만 4천’(정동수), 그리고 성경을 문맥에 따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체계인 ‘성경적 세대주의’(조지 젤러)에 대해 보여 줍니다.

바른 성경과 교리와 실행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주(主)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조명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sup>11</sup>그분께서 더리는 사도로 더리는 대인자로 더리는 복음 전도자로 더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sup>12</sup>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sup>13</sup>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sup>14</sup>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sup>15</sup>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4:11-15).

이 책자는 미국 워싱턴 킹스타운 침례교회(<http://www.kkbcva.org>) 성도들의 재정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해석이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해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일차적으로 본문 내에서 문법적 해석을 바르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그 말씀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수신자, 기록 목적 등을 살펴봄과 역사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먼저 바르게 된 다음에야 거기서 올바른 신학적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던 분들로부터 얻어들은 내용입니다. 당시 그분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Bible believer)과는 일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은 일차적으로 그 문맥 안에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창 QT를 열심히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는 개인적 의미는 무엇인가?”하는 관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 말씀에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개인적 의미’(사적인 해석)를 발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신명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아주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개역: 제 삼 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신26:12)

그것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신명기 26장 12절에서 말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끝에, “객(나그네)은 하늘나라를 영원한 본향으로 두지 못한 자요, 고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요,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모시지 못한 자다.”라는 (그 당시로써는) 참으로 기발한 생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통해 깨달은 바를 함께 성경 공부하던 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이런 묵상에 대해 칭찬을 하지는 않더라도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영해’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읽지 않고, 자꾸 거기에 무슨 오묘한 뜻이 있지 않나 싶어 영적인 의미만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문법적 해석

이것은 성경 본문의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창1장; 출20:11),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6일간의 창조’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옛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20:11).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옛세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읽고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6일 만에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느냐? 60만 년이나, 6억 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분명히 ‘six days’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6일’이라고 이해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60만년이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 60만년이 걸렸다.”라고 기록하셨을 겁니다.<sup>1)</sup>

요한계시록 20장 2~7절에는 한 절마다 한 번씩 ‘천 년’이라는 단어를 써서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 역시 문자적으로 천 년이지, 막연히 추상적으로 ‘오랜 기간’이나 ‘영원토록’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1) ‘날’이라는 단어는 하루 24시간보다 더 긴 기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날’(a day)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가리킨다. 이날은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다(계12:6,14). 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날에 살고 있다.”고 말할 때 이 은혜의 날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날을 뜻한다(벧후3:8-9). 이날이 하루 24시간만을 뜻할까? 이진 어떤가? “조지 워싱턴은 자동차나 전화기 혹은 비행기가 없던 날(a day)에 살았다.” 아브라함과 모세,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날’(the same day)에 살지 않았는가? 여기서 ‘날’이라는 단어는 ‘시대를 뜻하며 그래서 우리는 “조지 워싱턴은 차가 없던 시대에 살았다.”고 이해한다. 이 경우 ‘날’이 하루 24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맥으로 보아 금세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날’이 복수(곧 ‘days’)로 쓰였거나 출애굽기 20장 11절(6일), 창세기 1장 13절(셋째 날)처럼 앞에 수사가 붙을 경우 그 의미는 분명 24시간의 하루이다.

각 절에서 ‘천 년 동안’, ‘천 년이 끝날 때’, ‘천 년이 다 차매’라고 기록하여 그 기간이 유한한 기간으로서의 천 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어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적 해석은 물론, 시제, 태, 단수/복수 등에 대한 문법적인 검토, 수사법(직유/은유/시적 표현), 비유 등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법적 해석이 반드시 글자 그대로의 경직된 문자적 해석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성경이 예수님을 어린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위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법적 해석에는 이런 수사적 표현에 대한 고려도 포함됩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명백한 비유나 수사적인 표현까지 억지로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기대면서 “당신의 가슴은 푸른 풀밭이오.”라고 말하면, 이것은 그의 품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지 그 사람의 가슴 피부에 진짜로 풀이 자라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양’(요 1:36)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짐승입니까? 시편 기자가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시18:2)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돌덩어리입니까? 이렇게 문장의 수사법을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문자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법적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문장의 시제나 능동태/수동태, 명령문/수사의문문/평서문, 전체 문맥 속에서 문장들 간의 관계 등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1) 단수와 복수 문제

성경을 읽을 때 단수와 복수를 잘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 직접 보여 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씨들’(seeds)이라고 하지 않고, ‘씨’(seed)라고 단수로 표현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 시니라(갈3:16).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us, our)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셨는지, 성령의 열매(the fruit of the Spirit)는 아홉 가지인데 왜 단수의 ‘fruit’으로 표현되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죄(sin)/죄들(sins), 하나님(God)/신들(gods), 주(LORD, Lord, lord) 등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개역/개정개역

성경 역자들이 대부분의 중요 단어를 번역하면서 단수와 복수를 거의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2) 시제의 문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종교의식에 잘 참석하면 나중에 구원을 준다는 이야기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혹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에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현재 영존하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되어도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수동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그것이 이미 완료되어 계속적으로 효력을 미침)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일평생 교회에 묶어두기 위하여 구원이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믿는 자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제에 유의하여 성경을 읽으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의 구원은 확정적이며,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성경을 읽다보면 동사의 어미에 -th, -eth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고어체 스타일의 표현이라고 싫어하는데, 이것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주의하지 않고 대충 읽고 번역하면 개역이나 한글킹제임스성경처럼 스가라서 3장 2절을 엉터리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소개하겠습니다.

### (3) 명령문/평서문/의문문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장이 명령문인지,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수사어문문인지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종종 설교 시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지,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아서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므로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마 5:13-14).

마태복음 5장 13~14절 역시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는 명령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사실 진술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금이라면 자연스럽게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어떤 노력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면 저절로 그 환한 광채는 사방으로 퍼져 나가고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빛은 원래 밝고 퍼져 나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들로서 빛날 뿐(ye shine as lights, 빌2:15), “빛이 되어라!”라는 도덕적 훈화 말씀처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나 에베소서 5장 18절은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 역시 이를 주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읽고 이해해야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 (4) 문맥의 중요성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매일 아침 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그 날 목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5편 6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어린양의 피를 즐기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는 것도 즐기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다른 형제들은 부분적으로 뭔가 공감하는 듯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개역과 흠정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개역: ...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5:6)

흠정역: ...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리로다.

그 당시에는 다들 개역성경을 사용하던 터라 끊어 읽기를 잘못하면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와 같이 읽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가 그 앞에 나오는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시5:5)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더라면 이런 오해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 본문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내용만을 추출하여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There is no God.”(시14:1)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마13:12)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처럼 자기 입맛에 맞게 끼워 맞추기 식의 해석은 성경 본문의 문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시14:1).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마13:12).

제가 글을 쓰면서 여러 참고 구절을 인용하거나 종종 전후 문장의 흐름과 맥락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문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나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나오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라는 말씀도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 2.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이란 역사적인 시대나 그것이 기록된 배경과 목적, 수신자, 당시의 생활풍습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취할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는 다 네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취할지니 너희는 그들에게서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살지니라(레25:44).

레위기 25장 44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왕, 귀족, 평민, 제사장,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도 속에서 살 때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글자 그대로 적용하여 자기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팔고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 것들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레위기 11장 7절에 의해 돼지갈비나 삼겹살은 먹으면 안 되고, 레위기 11장 12절에 따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속 생물들(오징어, 굴, 해삼, 전복 등)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어떤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들 짐승들이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와 연관된 것이거나,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거나, 이스라엘의 더운 날씨에서는 쉽게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저런 음식물에 대한 규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는 디모테전서 4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딤후4:3).

성경에 나오는 할레나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지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사내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창17:1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키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출31:13).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든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디만, 각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고 경영하시는 경륜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바르게 나누어서 이해해야 합니다(딤후 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역사적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어느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셨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다른지, 4 복음서는 수신자와 기록 목적, 배경 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역사적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 문화, 기후, 풍습, 제도 등에 대해 공부해 두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맛 잃은 소금(마5:13),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요한복음 10장), 친족의 상속 재산을 대신 물려주는 제도(룻기 4장), 형사취수 제도(창세기 38장), 이스라엘의 달력과 주요 명절, 지역별 기후와 특산물, 유대인들의 식사예절 등도 알아두시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 식물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나오는 신학적 해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찾는 해석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3. 신학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은 다소 복잡하고 사람마다 어떤 신학적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 기록자가 최초로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차적인 성경의 독자들(수신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생각해보며, 이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묵상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명기 17장 18-20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주의 말씀을 필사하여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동력이 솟아나서 성경을 읽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는 이미 여러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다시 필사해야 할까요? 혹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해당하는 규례이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니므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하시겠습니까?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문법적, 역사적 해석의 토대 위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말씀이 직접 우리를 대상으로 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구약성경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본보기와 훈계를 주기 위해 그 말씀들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고전10:11).

사도 바울 역시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곡식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적용하여 일꾼이 자기 샅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신25:4).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삷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딤후5:18).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받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고전9:9~10).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문법적 해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그 말씀이 기록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나 수신자, 기록 목적 등을 검토하여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학적 해석은 그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각자가 개인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목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 잘못된 해석들

몇 가지 잘못된 성경 해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1) 문맥을 무시한 해석

[그가]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마14:30)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후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며, 죄가 아니라 물에 빠진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해석이고, 문맥 내에서 특정 부분만 도려낸 잘못된 해석입니다.

##### (2) 비유적 해석

성경 100독 세미나로 유명한 조현주 장로나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모두 성경을 비유로 풀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표적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44절에는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명석을 교주로 하는 이단 JMS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빵을 떼면 크기가 작아지고 가루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오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비유로 해석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함부로 비유적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대 변명할 수 없도록 마가복음 6장 43절에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말씀 잔치였다면 ‘남은 빵 조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남은 빵 조각들로 가득 찬 바구니를 생각할 때, 정말 그들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의 빵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비유적 해석을 할 때에는 주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유적 해석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마10:5-6).

마태복음 10장 5-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양들(sheep)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읽고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등은 당연히 비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3) 문법적, 역사적 해석 vs 상징적 해석, 영적 해석

저는 제법 오랫동안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언약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과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십사만 사천이더라(계7:4).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십사만 사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계14:3).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며, 14장 3절에는 구속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들고 와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며, 자기네들만 구속받은 무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도 수는 이 숫자를 넘으면 안 되나 봅니다. 이런 이단의 주장에 대해 조안을 구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면 그중에 네가 들어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100명이라도 그중에 네가 들어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1명이라고 해도 그중에 네가 들어가 있다고 믿어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답은 안 해 주고 구원의 확신으로 밀어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다. 3은 하나님의 수, 4는 세상의 수, 두 수의 곱은 12로서 주께서 택하신 열두 지파, 열두 제자를 나타낸다. 12의 제곱은 144이며 여기에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도의 상징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14만 4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에게서 나온 언약신학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르우벤, 영적인 유다, 영적인 시므온, 영적인 갓, 영적인 아셀은 누구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구속받은 자를 말한다. (다행히 문자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 말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7:9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니까?(계7:14) 살전 4:16-17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휴거되어서 큰 환난을 겪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부분 여기에서 말문이 막힙니다만, 간혹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교리를 내세우며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지 말고 열심히 잘 믿어야 하고,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고 등”(이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자손 144,000명’에 대해서 상징적 해석을 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곧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주장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기에 거론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은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믿고, 그 숫자도 실제 숫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나누지 않고, 믿는 우리가 곧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해석을 해 버리면, 우리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에 의해 휴거도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곧 이스라엘이므로 대환난도 통과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과 휴거된 성도들 머리 위로 대환난이 쏟아진다.”라는 새로운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거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적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 (4)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한 상징적 해석의 실례

아래 인용문은 이전에 함께 성경을 공부하던 한 형제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을 겁니다.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의 실례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이고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만약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면 - 죄악에 물들었다면 - 포도즙과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잘 치료 받으려면 데나리온 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또 더욱더 심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가는 짐승의 네 다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라는 짐승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목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고 두 데나리온은 2,000년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2,000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과연 어디에 예수님의 재림 내용이 있습니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알려주시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과는 전혀 무관하게 해석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나 그 말씀을 들은 율법사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비유나 상징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하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 말씀 속에 무슨 다른 뜻이 있거나, 감추어진 신기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각 시대별로, 각 수신자 집단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하며,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QT는 Quiet Time, 즉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므로, 이런 시간은 어쩌면 크리스천에게 필수적인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은 유익이 많을까요, 잃는 것이 많을까요? 제 생각엔 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말씀 그대로를 읽는 것이 아닌, 거기서 자꾸 다른 뜻을 유추해내고 어떻게든 감동과 적용점을 찾으려 하는 그런 QT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기업에 다닐 때는 아침마다 조를 짜서 QT를 했습니다. 그날 주어진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저마다 적용이 다르고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나누며 공감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미국 등지에서 많이 하던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십여 년 전부터 유행처럼 퍼져 나갔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열방대학 등에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세계에서 모인 이들과 QT를 나누면서 그들의 '영성'에 작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작은 화분 하나를 보고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성경 한 구절에서도 자기만의 진지한 적용과 철학을 발견하는 것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점점 자기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개발해 사람들에게 들려주려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위한 생각, 남을 감동시키기 위한 생각을 개발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QT의 파트너가 바뀌면 나눌 내용이나 수위나 코드 자체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통해 나눔을 잘하는 사람만 부각되거나, 신앙보다는 느낌과 감동에 치중하는 모임이 되곤 합니다.

종교인들은 감동을 원하고 신앙인들은 깨달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종교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달콤한 이야기를, 성경 강해나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질책보다 선호합니다.

언젠가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로 유명하다는 한 교수이자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온 적 있는데, 명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메시지는 심각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이나 성경적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도의 구루 오쇼 라즈니쉬 정도에게 들을 수 있는, 재미있으면서도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입술 위 인종의 패인 골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하시면서 입을 다물도록 꼭 눌렀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국이 생겼고, 아기는 그 비밀을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서는 말을 못하는 것이며, 자라면서 그 약속을 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지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듣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에는 심각한 교리적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범죄와 피의 부패 이후로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자기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종의 유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실제로 믿는다면,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로 태어나 그 사실을 서서히 잊어버리는 해도 어차피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의 희망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같은 절대자를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배교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는다 하니, 이런 듣기 좋은 이야기와 무척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천동설이 정설이었다가 지동설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지동설이 정설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미술에서 주된 피사체를 배치할 때 정 중앙에 놓기보다는 화면의 약간 옆에 배치할 때 더 구성미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이 아닌 약간 옆에 놓으셨나 보다.”라고 말하면서 굳이 지구가 중심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QT는 아니고 작은 깨달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귀납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글을 쓰는 사람이나 설교자 등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독창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 사람은 새로운 논리를 창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만 생각의 반경을 넓히다 보니 열린 자세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까다로운 진리나 타협과 양보가 없이는 풍부한 예를 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할 여지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자기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비논리와 두루뭇술함 속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참된 진리가 없고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파워풀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좁은 길로 가면 모든 것이 닫히고 답답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더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감과 많은 행인들 사이에서의 혼동, 그리고 건질 것 없는 비진리의 홍수 속에서 참된 자유를 잃게 합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논란이 많고 대다수 크리스천들도 지동설을

과학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느 누구도 상대적 운동을 하는 우주를 비교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동설의 증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며 전혀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는 일은 보조 수단이 되어야 하며, 신중해야 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과학을 믿으면 틀린 것을 옹호하기 위해 엉뚱한 목상을 하게 됩니다.

QT의 폐해를 만들어내는 이런 실수는 논리적인 사람보다 감상적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명확한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은혜와 감동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함은 간과하고 감상적인 목상만을 좇는 습관은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 제1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부수적인 것만 찾아 느끼려 하고, 누구에게 준 말씀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무작정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제대로 깨닫거나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지식이 늘 제자리걸음을 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낌으로 다가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 하다 보니, 그분은 어떤 날은 한없이 자비롭다가도 어떤 날은 무섭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어떤 날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분이 되고 맙니다. 내 입장에서 느끼는 것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것을 이해하면서 먼저 알게 되고, 그 후에 서로 알게 되며, 관계를 맺는 분입니다.

또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찾으려 하면 세상 논리와 학문이 동원되면서 궤변을 말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전체를 통해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학자는 참신한 자기만의 해석을 시도하고

목사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구하며

크리스천은 주변에 함께 나눌 감동을 찾는다.

이 모두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과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스스로가 드러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런 일을 지속하다 보면 진리에서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QT입니다. 성경은 읽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초신자 때부터 혼자 목상하며 자기만의 하나님을 찾다 보니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자 하나님의 속성은 사라지고, 각자 느끼는 기준과 개인적인 모습의 하나님만 남아, 기독교는 그때그때 다른 '상대주의적' 종교가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방식의 접근이 계속되면, 교리는 교훈이 되고, 좁은 길은 넓은 길이 되며,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요령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목상은 먼저 말씀을 읽고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하나님의 최소한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성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설픈 QT는 초보운전자가 고속도로에 나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사55:8).

### 바르게 QT를 하려면

진정한 묵상, 바른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Q: 매일 QT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QT가 크리스천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까 뭔가 충격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QT의 문제점이라고 하신 부분이 지금 제 신앙적인 고민이랑 맞아떨어져서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글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제가 학교에서 QT 모임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이 글을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신앙을 성숙하게 키우고 싶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우선 정확한 교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잘 아는 것들일 수 있지만 <성경 신자들의 교리 문답 소책자>에 나오는 것들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큰 틀에서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sup>2)</sup>

A2: 지나친 해석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읽고 그 뜻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의 언약인 무지개에 대해서, 심판의 물과 새로운 희망의 빛이 만난 혼합물이라고 해석하더군요. 그럴듯하지만 물은 심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고, 침례에도 쓰이는 것인데 굳이 무지개를 그렇게 풀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리지 않는 것이나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A3: QT 안내서를 버리십시오.

개신교단 등지에서 만든 QT 안내서나 가정예배서 등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교리나 천주교 신학, 매너리즘에 빠진 해묵은 해석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 혼자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이것들을 너무 의지하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각 내용 뒤에 혼자 답을 쓰는 곳이 있어서 검증할 수 없는 틀린 답을 작성하기 쉽고, 내용 이해를 돕는 미담이나 감동 스토리 등은 독자를 단단한 식물의 단계로 안내하기보다는 젓먹이 신앙에 머물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A4: 질문에 신중하십시오.

---

2)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6\\_02&write\\_id=250](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6_02&write_id=250)

주변의 이는 목사님, 멘토, 오랜 경력의 신앙인 등에게 의지하여 답을 얻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대한 탐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설픈 크리스천 카페나 교회 홈페이지 등에 질문을 올리지 말고, 제대로 된 지식과 바른 상식 안에서 말씀을 다루는 곳을 찾고 분별해 신중하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질문의 답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성경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겠지요.

A5: 답변에 신중하십시오.

신앙 경력이 좀 되다 보면 주변에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때 모르는 것이나 애매한 것은 정직하게 모른다고 해야지,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욕에서 적당히 답하면 타인에게 바른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어떻게든 풀어서 답변을 하려다 보면 새로운 논리 개발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지식적 우월감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A6: 설교나 나눔에 진지해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 믿을 만한 리더가 없다면 아무나 말씀을 나누거나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등의 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때는 검증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인터넷 등을 통해 함께 듣거나, 검증된 신앙도서의 내용 일부를 한 사람이 전달하고 교육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A7: 적당한 리더가 없다면 바른 성경을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바르게 번역된 성경은 읽고 그 자체의 뜻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예컨대 영화 〈요한복음〉 같은 경우, 모든 대사가 성경 구절로만 되어 있는데도 그 은혜가 넘치도록 놀랍습니다.<sup>3)</sup> 이처럼 말씀의 힘을 그대로 느끼며 깨닫게 되면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후의 나눔은 강해가 필요한 지식적인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경이로움, 말씀의 신비 등에 관한 것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해 부족이나 잘못된 지식을 유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 주님이 더 높은 차원의 묵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므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보다는 그분의 넓은 품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이웃에게 바르게 전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려는 간절하고 진정한 마음일 테니까요. 하루하루 바른 성경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가 더해지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 <http://www.youtube.com/watch?v=oLVupZxqJqw>

# 마태복음 24장의 올바른 해석



## *Correct Interpretation of Matthew 24*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바를 기록한 복음서이지만, 각 복음서가 목표로 하는 수신자(target audience)와 기록된 목적과 성격은 각기 다릅니다.

그중에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항상 그 말씀의 일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sup>4)</sup>

많은 설교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의 표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이것을 신약 교회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신약 교회와 연관 짓다 보니 부분 휴거설이니 환난 중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 등의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은 교회의 휴거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 미래형(I will build)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아직 신약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되었습니다(고전12:13).

이번 글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그것이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 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1절에 '성전'(temple)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고전3:16).

4)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킵바이블 사이트([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에 있는 정동수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첫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분당 성전, 강남 성전, 과천 성전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일 뿐입니다. 2절에 나오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 교회가 환난기에 들어가면 종교적 박해가 일어나서 어느 지역교회의 건물이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1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 제자들이며 그들은 신약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장엄한 모습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눅21:5)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2).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불길에 굽이 녹아내려 돌들 사이에 스며들자 타이투스는 모든 기둥과 돌들을 다 파헤쳐서 금과 보석들을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들이 깨어지고 가루가 났으니 돌 위에 다른 돌이 겹쳐지지 않을 정도로 파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적 배경은 올리브 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큰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올 때에 올리브 산에 임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 자체가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슥14:4).

‘유대인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에 걱정이 되어서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에서 ‘주께서 오시는 때’란 유대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를 말합니다(행1:6). 제자들이 말하는 그 때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의 몸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에는 ‘교회의 휴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요14:3).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3).

개신교회의 많은 분들은 마24:2를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지 미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폼니다(과거적 해석 방법).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마24:2는 1차적으로 AD 70년에 이루어졌지만 24장의 나머지 내용은 AD 70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3절에 있는 유대인 제자들의 질문 즉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아직 세상 끝이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태복음 24장은 미래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다룹니다.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5절에서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거짓 종교의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6-8절은 마지막 날에 있을 전 세계적인 재앙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회나 신약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먼저 휴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신약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남아 있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휴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닥칠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렘30:7).

개역성경은 6절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고 번역하였고 이를 근거로 많은 분들이 여기의 '전쟁과 전쟁'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복수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아서 '전쟁과 전쟁'이 된 것이지 원래는 '전쟁들과 전쟁들'입니다.

[9]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9절에서 '너희'란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을 말하고, '민족들'(nations)이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a nation'으로 등장하며, 이방 민족들은 복수형인 'nations'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7년 환난기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물이 피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등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방 민족들이라고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임할 고난보다는 유대인들이 겪게 될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11]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12]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고, 속고 속이며,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땅에는 불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저지하고, 막고 계십니다(살후 2:6-8).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살후2:6-8).

그런데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면 불법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저 사악한 자(that Wicked 대문자임)가 드러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길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신약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면, 신약 교회는 휴거되고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결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사역의 방향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고 보호하는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14만 4천 명의 봉인된 유대인들을 사용하여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계7장).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불법의 신비가 활약하고 저 사악한 자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그 모든 핍박을 피해서 숨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몸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여기서 ‘끝’을 ‘목숨을 다하는 끝’으로 해석하고는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끝’은 6절의 ‘끝’과 14절의 ‘끝’처럼 7년 환난기의 끝을 말합니다. 목숨이 다하는 때가 결코 아닙니다.

[14]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행20:24).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행20:24).

14절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봉인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계7:4). 많은 선교 단체들은 “우리가 아직 땅 끝까지 복음을 못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데, 아프리카 산간오지 마을, 공산주의 국가, 이스라엘, 모슬렘 국가에까지 복음을 다 전하면 그제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약 시대의 은혜의 복음과 마지막 날들에 온 세상에 선포될 왕국의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는 정말 그런 줄로 알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를 양성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에 매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을 신약 교회에 적용하고,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또 오역하여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5]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15절에 나오는 대언자 다니엘은 신약 교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대언했습니다(단2:44). 다니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전 세계적인 환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네 백성)이 겪을 환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세상 끝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그때에 [대환난기에] 네 백성의 자손들[유대인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유대인]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단12:1).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미리 해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차 임할 통치재적그리스도의 백성이 그 도시[예루살렘]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나니라(단9:26~27).

[1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16절에 구체적으로 ‘유대’라는 지명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신약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방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성경은 여기의 ‘산들’을 역시 단수로 ‘산’으로 번역했고 그 결과 많은 목자들이 영해를 하면 여기의 ‘산’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에 충성/봉사해야 환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믿는 단순한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17]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17절의 지붕은 한국의 초가지붕, 기와지붕, 아파트 옥상이나 유목민들의 천막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벗기고 부수어서 마비 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거늘(막2:4)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여섯 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행10:9).

[19]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리라!

영해에 빠진 목사들은 여기의 ‘아이 밴 자들’은 ‘아직 전도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젖 먹이는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의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실제로 아이 밴 유대인 여인들과 젖먹이를 둔 유대인 여인들을 말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여인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20절에 ‘겨울’이라는 특정 계절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겨울이면 지구의 남반부는 여름이기 때문에 남반부 사람들은 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도망가는 데 불편을 느낄 민족은 유대인들 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의 여기의 ‘너희’도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영해하여 ‘겨울’은 ‘믿음이 식은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의 ‘겨울’은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유대의 겨울을 뜻합니다.

[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23]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 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21절에 큰 환난(great tribul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Great Tribulation’이나 ‘Tribulation’이라는 표현이 없고, ‘tribulation’이나 ‘great tribulation’만 나옵니다. 그 환난이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엄청나게 큰 환난이기 때문에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것이지, 고유명사로서 ‘Tribulation’이 따로 있고,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Great Tribulation’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적인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환난(tribulation)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Tribulation'이라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해서 구별하는 것뿐입니다. 7년 환난과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을 나누어서 전반기 3년 반은 가볍게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소한 환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전반기 3년 반의 환난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여러 이민족들(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에는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큰 환난'(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전반기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난도 겪겠지만, 특별히 후반기 3년 반 동안은 그것에 덧붙여 적그리스도로부터 큰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에는 '선택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문맥을 볼 때 이들 역시 신약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목적, 사역, 복을 위해서 사람이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이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신7:7; 사44:1, 45:4). 거짓 메시아와 거짓 대언자들이 속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왕국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출19:6). 다른 민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적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신7:7).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사44:1)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사45:4).

[27]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0]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공중 강림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큰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지상 강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교회의 휴거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31]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은 나팔 두 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집회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민10:2).

마태복음 24장의 나팔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나팔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전4:16-17이나 고전15:51-52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과도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에는 부활(resurrection)과 몸의 변화(translation) 사건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는 나팔이지, 신약 교회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2]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32절의 무화과나무는 글자 그대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자연 현상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예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들을 볼 때, 그것을 통해 마지막 날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또 [너희가]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갓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마16:3)

굳이 여기서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33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했지, '무화과나무를 볼 때에' 그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41]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40-41절에 나오는 붙잡혀 가는 자, 남겨진 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붙잡혀 가고’를 ‘데려감을 당하고’라고 번역했고, ‘남겨지는 것’을 ‘버려지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는 것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마24:40, 개역)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붙잡혀 가는 곳은 독수리 떼들이 모이는 곳, 시체들이 있는 곳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붙잡혀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붙잡혀 가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어 육식성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계19:17-18). 이것은 신약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눅17:3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계19:17-18).

지구의 동쪽 절반이 낮이면 그 반대편은 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지구의 동반구와 서반구에서 일어날 일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낮에 일하다가 붙잡혀 가는 사람과 밤에 자다가 붙잡혀 가는 사람 이야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 지방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낮에 들에서 일하거나 댕들을 가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밤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함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눅17:34)

[45]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46]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4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처리자로 삼으리라.

[48]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49]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50]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 그를 잘라 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것을 비유나 상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영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으면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모든 상거래를 통제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그와 손을 잡겠지만, 3년 반이 지난 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살후2:4).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고 숨어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다른 생활용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참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양의 식량을 서로 나누어 먹고 살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기초한 동족들에 대한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오히려 동족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 어린 아이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조차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대단한 선행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마10:42; 25:40). 사람들은 환난기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선행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환난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그런 선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그때에 믿음에서 난 신실한 삶을 사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한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재산을 맡을 치리자가 되겠지만(47절), 믿음이 없어서 악하게 행한 자들과 위선자들은 심판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51절).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신약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신약 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신약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신약 성도들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고후5:10).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신약 성도 중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자리이지 죄에 대해 형벌을 받는 심판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신실한 종,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을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열심히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게으름 피우고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면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환난기에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남아있을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유대인 제자들, 예루살렘 성전, 올리브 산, 유대 지방, 안식일, 택한 자들, 거짓 메시아, 민족들의 핍박, 왕국의 복음, 큰 환난, 소집 나팔, 동족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 등...

여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의 휴거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만약 마태복음 24장이 신약 교회의 휴거를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는 사건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에 대한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마태복음 24장은 신약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환난기에 이 땅에 남아있을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부분 휴거설이나, 환난기 중간 휴거설이나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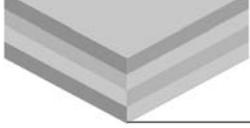
이 글은 마태복음 24장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각 구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sup>5)</sup>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말씀이 일차적으로 어느 시대, 누구를 향하여, 어떤 목적으로 하신 말씀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옆집 우편함에 꽂힌 합격 통지서를 꺼내 보고 자기가 수신자도 아니면서 혼자서 실실거리며 좋아하거나, 이웃집 우편함에 들어있는 법원 출석 요구서를 뺏아들고 그것이 자기한테 온 것인 줄 알고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

5)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정동수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 동방의 독수리와 14만 4천



*Eastern Eagle and 144,000*

19세기 중반 전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미국에서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물몬교 등의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자기들만이 계시록의 14만 4천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0년간의 여호와와 왕국이 이루어지면 자기들만이 구원에 참여하여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윌리엄 밀러에 의해 시작된 안식교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거하여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일을 2,300년으로 잘못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1차 재림이 1844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다가 주님의 재림이 없자 크게 실망한 뒤 지금은 그분이 조사 심판 중이며 2차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펠니다.

물몬교는 종말론과 미국인 선민의식에 빠진 조셉 스미스가 도를 닦다가 UFO의 인도를 받고 특별 계시를 받아 추종자를 거느리게 된 미국인들의 토속 샤머니즘 종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계룡산에서 도를 터득하여 흑세무민하는 이단의 한 종류로 보면 됩니다. 그 안에는 아메리카 대륙과 미국인들에 대한 강한 선민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계 이단들의 특징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내부의 신도들에게 신비적 종말론을 주입하여 교회와 교주에게 충성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만 들어가면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신도들을 부추겨 재산을 탈취하고 맑은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느 이단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 이런 데 빠지면 이성이 마비되어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본인들만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강한 확신에 잠겨 바른 것을 말해 주는 모든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박태선의 전도관을 필두로 해서 역시 선택받은 14만 4천을 미끼로 내걸며 동시에 한국 민족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자생한 사이비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미국의 이단들처럼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강하게 주입하고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도록 강요하며 특히 한국이 동방의 독수리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고양시킵니다.

2013년 3월 4일 자 <한겨레 21>은 한국 내 사이비 교회들의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는 민중들을 선도하고 계몽하기 위하여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음은 그중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sup>6)</sup>

신과의 합일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신앙 행태는 지금까지도 한국 개신교계 소종파의 주요 특징이다. 2000년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국제종교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연구’는 개신교 계통 소종파를 크게 △신비주의 △종말론 △외국계 신흥종파 3가지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우세한 것은 신비주의 계열이다. 신비주의 계열은 다시 △베뢰아 아카데미(귀신론) 분파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 △직통 계시파 △전도관 분파 △장막성전 분파 △통일교 분파로 나뉘는데, 최근 개신교계가 대대적 배척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장막성전 분파에 속한다.

장막성전은 1960년대 경기도 과천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서울대공원이 들어선 막계동 일대가 이들의 ‘성지’다. 신천지 교회의 본부가 과천에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장막성전은 1966년 한국 소종파 운동 사상 가장 나이가 어린 유재열(당시 17살)이 세워 화제를 뿌렸다. 장막성전이란 이름은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내가 이일 후에 보니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한다.

유재열은 1960년대 초부터 부모와 함께 서울 상도동의 호생 기도원을 다니며 신비주의 신앙에 몰입했다. 그는 1965년에 예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이듬해 ‘종말 심판의 피난처’라는 장막성전을 설립했다. 전성기에는 청계산 저수지가 있는 막계동 일대에 신도 2천 명이 모여들어 집단생활을 했을 정도다. 하지만 조직 운영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의 투서 때문에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나온 뒤 교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1980년 기성 교단에 교회를 헌납하고 홀연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해 사업가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떠난 뒤 장막성전은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무지개증거장막 등 여러 갈래로 분리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재열은 자신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며 14만 4천 명에게 구원의 징표를 주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의 성서 해석과 교리의 기본 골격은 핵심 추종자이던 이만희(현 신천지 총회장)를 통해 지금의 신천지에 고스란히 전승된 것으로 알려진다.

신천지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소종파들은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존재와 함께 신비주의와 종말론적 흐름이 섞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진구 연구실장은 ‘예언서·계시록의 종말론과 민족주의적 선민사상이 결합해 재림예수가 한국에 온(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 한국 소종파에서 보이는 보편적 흐름’이라고 했다.

이런 흐름이 형성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한국교회사 연구자인 이덕주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교권화된 기성 교회에 대한 불만과 영적 체험에 대한 열망에서 싹튼 해방 전 신비주의 그룹이 전쟁의 참화와 극심한 빈곤의 경험 속에서

6)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4012.html](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4012.html)

종말론적 계기와 만나고, 때맞춰 등장한 카리스마적 개인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등장한 소종파들은 처음엔 기독교의 카테고리 안에 머무르며 활동하지만, 교세가 늘고 주류 교회의 배척이 시작되면 점차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된다. 그들의 교주들은 선지자나 성령, 재림예수를 자처하다 말년엔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박태선(천부교)·안상홍(하나님의 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에 따르면 국내 소종파 지도자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여 명, 재림예수를 자처하는 경우가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밖에 하나님의 부인이나 보혜사 성령, 혹은 성서 속 인물인 엘리야나 다윗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소종파 집단 안에서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를 절대화하다 보니, 공교회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횡령이나 폭력, 추행 같은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고 결국 사법 권력의 개입을 부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기사에서 보듯이 한국의 소종파 사이비들의 특징은 일단 한국 민족을 특별히 선택받은 동방의 독수리로 보며 그중에서도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만 계시록의 14만 4천으로 규정하여 성도들의 맹목적인 추종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통일교에서는 이미 재림주가 재림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계시록 7장 2절에 따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곳이 '해 돋는 데' 즉 동방의 나라인 한국이라고 해석합니다(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해 돋는 데'라고 하지 않고 '동쪽'이라고 말함). 따라서 통일교 신도들은 자신들의 교주인 문선명(文鮮明)이 바로 그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전도관에서는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말세가 된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교주인 박태선(朴太善)이 곧 감람나무이며 그가 왔으므로 지금이 말세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약조건에서는 14만 4천 명만이 천년 성에 들어가고 호조건에서는 14만 4천 명 외에도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전도관의 신앙촌 입주자의 수에 따른 변화를 예상하고 내놓은 주장입니다.

요즘 교회들에 큰 문제를 안기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성경이 온통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바로 풀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친절한 기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보고는 목사냐고 묻고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친절한 분으로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성경 해석 방법이 기묘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34-35절을 인용하였는데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비유이며 심지어 창세기 이후의 모든 것이 다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유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에게 성경을 배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신천지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는 개역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그분의 말씀은 모두 비유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룡산 도사들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흠정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without a parable)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말하되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요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쉬운 비유를 들어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without a parable’인데 이것이 개역성경처럼 ‘비유가 아니면’으로 잘못 번역되면 수십만의 사람들을 무지와 저주 속에 빠뜨립니다. 이런 오역으로 인해 신천지에 빠져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신천지는 성경 전체를 이와 같은 비유 해석 즉 영해(靈解)로 풀고는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명이 구원받는 자로 신천지에 입교하면 신천지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천의 청계산 부근에 임하게 되며 그들은 육체로 영생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면서 신천지가 들고 나오는 것이 한국 민족의 우수성과 최근에 이루어지는 한류 열풍입니다. 14만 4천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며 이런 일을 위해 싸이 등의 한류 열풍이 -비록 저급하지만 - 온 세상에 파급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교주가 있는 한국은 성지 중의 성지이며 14만 4천에 속할 한국 사람들은 선민 중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천지 역시 과거에 토속 종파들이 사용하던 방법대로 비유 해석(영해)의 계시록 설교와 ‘동방의 독수리’ 타령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는 좋은 나쁜든 한류 붐을 일으킨 것은 싸이를 비롯한 출중한 한민족 가수들 - 신천지의 한민족 선민사상에 따르면 - 인데 신천지는 이들이 일으킨

한류 열풍은 선민사상을 증명하기 위해 대대 선전하면서도 이런 연예인들의 한류는 저급 한류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영적 한류가 새로운 차원의 한류라고 주장합니다.<sup>7)</sup>

다음은 ‘새로운 한류 신천지 한류’라는 제목으로 신천지뉴스에 난 기사입니다.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톱스타가 된 싸이는 이제 세계 각국을 누비며 노래한다. ‘강남 스타일’의 B급 정서는 전 세계인에게 통했고, 덕분에 싸이는 좋게든 나쁘게든 국가 홍보에 공을 세웠다. 최근 후속곡 ‘젠틀맨’의 관심과 인기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번 ‘젠틀맨’의 가사는 물론 뮤비의 선정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위 선양이니 창조 문화니 하며 싸이를 온통 찬양하고 있지만, 과연 그 내용과 질이 어떠한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한류란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서가 세계에 전파되어 널리 관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한류란 비단 대중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섭(막힘이 없이 여러 분야에 통합)의 흐름이어야 한다. 이에 최근 세계의 종교인들을 눈뜨게 한 새로운 한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4월 중순, 인천공항에 다수의 외국인 목자들이 내한했다. 미국,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각국의 비행기가 착륙했다. 이 나라들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신천지 예수교의 총회장의 4차에 걸친 계시록 순회강연을 접한 국가들이다. 총회장은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와 방송 출현을 통해 뚜렷한 계시복음을 전했고, 각국 정상과의 대담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평화의 재료로서 ‘하늘 문화’를 제시했다. 현지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전에 들어 보지 못했던 미래에 관한 새로운 해법은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했다. 이미 20년이 넘는 목회 연륜과 수만의 성도수를 가르치고 있는 목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종교 유학을 오게 된 것이다. 이들은 신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직접 확인하며, 비유풀이부터 계시록의 실상까지 보름부터 길게는 석 달까지의 일정으로 성경 전반을 공부하고 있다.

5월 잠실 올림픽 홀에서 ‘신천지 말씀 대성회가 열렸다. 이들은 행사에 참석하여 자진해서 단상에 올라 뜨거운 간증을 토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주셨고, 성경 육천년의 역사를 깨닫게 해 준 약속의 목자에게 너무 감사하며 머리를 숙였다. 또한 지금껏 무지의 시대를 살던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것임을 본국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다. 많게는 천만이 넘는 성도를 거느린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탄성과 말씀 앞에서의 순종은 과연, 이 역사가 확실한 증거와 비전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흐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신천지 한류, 오늘도 신천지는

---

7)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4>

하늘의 문화와 평화의 정신을 통하여 혼돈한 지구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류가 대세인 오늘날, 구습을 뛰어 넘어 신한류를 개척한 신천지...이제는 말세론이 아닌 창조론을 논할 때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신천지는 신패러다임의 주자로 우뚝 섰다.

사이비들이 선민의식 고취와 함께 흑세무민하는 양상은 전 세계 대부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천지가 폄하한 싸이가 바로 장막성전의 창시자인 유재열의 사위라는 점입니다(‘해 아래 새 것 없다’ 신천지의 계보, 교회와 신앙).<sup>8)</sup>

싸이를 비롯한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K 팝 가수들이 온 세상에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루스의 눈, 루시퍼, 단일세계정부, 천주교 마리아 찬양 등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한류 열풍과 하나님의 선민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등의 공작을 통해 한국인들이 마귀의 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게 올바른 분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찬양하는 한류 열풍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제 계시록 영해로 역시 우매한 사람들을 사로잡는 안상홍 증인회의 동방의 독수리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동방의 독수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다(안상홍님)’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sup>9)</sup>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때 동방의 구원자로 등장하신 안상홍님을 믿고 있습니다.

동방의 구원자이신 안상홍님께서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 66권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영적 고레스이신 안상홍님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 동방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사46:11)

동방의 독수리는 구원자께서 동방 나라에 사람으로 등장하시어 하나님의 모략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훼방자들은 사체를 먹는 독수리를 하나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성경의 예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8) [https://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5629](https://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5629)

9) <http://cafe.naver.com/festival1004/1183>

성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성정을 알려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는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징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된 동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으려는 의도는 억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하기도 하고(계5:5)

때로는 어린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요1:29).

또한 포도나무와 (요15장) 성전으로도 표현합니다(계21:22).

하나님을 사자, 어린양, 포도나무, 성전으로 표현하신 데는 각각 뜻이 있습니다.

사체를 먹는 동물에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포도나무나 성전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체를 먹는 독수리에 하나님을 비유하면 안 된다는 훼방자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독수리로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출19:4)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신32:11)

동방의 독수리로 임하신 하나님은 재림그리스도 안상홍님이십니다.

안상홍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모략인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안상홍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곳은 절기 지키는 시온,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님의 신성을 깨달아 안상홍님께서 이루시고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통해 우리는 안상홍 증인회 역시 한민족의 우수성을 고취하면서 동방의 독수리가 곧 한국에 임한 구세주 안상홍이라고 주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심지어 계시록의 밧모 섬과 예루살렘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평으로 같은 위도에 있다고 세계 지도에 수평으로 금을 그어 놓고는 한국이 곧 계시록이 말하는 ‘해 돋는 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지도를 펴서 수평으로 금을 거 보면 이것이 거짓말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에 ‘성’이 세 개 있듯이 ‘안상홍’에도 ‘성’이 세 개 있어서 안상홍이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추론은 모두 비유 해석 즉 영해(靈解)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기존 교회들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부산제일교회 박무수 목사의 동방의 독수리 설교인 ‘동방의 독수리의 비밀’(사46:11)을 살펴보겠습니다.<sup>10)</sup>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음 속 제일 깊은 곳에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깊이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 눈이 밝아져서 내 앞에 예비 된 복이 보입니다.

### 1. 동방의 독수리는 모락을 이룰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노략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분별하여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됩니다(요일4:1, 잠13:20). 교회에 가면 흔히 구약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4단계 회개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고후3:14).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니 '동방의 독수리'를 바르게 깨달아 설교하는 분이 없습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락을 이룰 사람'입니다(사46:11).

### 2. 동방의 독수리는 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모락입니다. 모락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한 자에게 모락을 주시며 명철한 자가 모락을 얻게 됩니다(잠1:5). 명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목사이입니다(렘3:15). 모락을 얻은 참 목사가 여러분을 지혜와 명철로 양육하여 넉넉히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참 목사를 지칭하는 '동방의 독수리'를 '악한 날짐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락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악한 날짐승'으로 바꾸어 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시107:10-11).

### 3. 모락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이 독수리의 특성을 알면 왜 참 목자를 독수리에 비유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명철한 참 목사가 말씀을 힘 있고 강하게 전하며 모락을 얻은 자로서 사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밝은 눈이 있습니다(잠24:5, 잠20:5). 참 목자는 모락으로 성도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을 살려 주는 것입니다(눅23:34). 우리도 명철한 자에게서 나오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책망과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잠21:16).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특정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명철한 자가 동방의 독수리이며, 이 뜻을 동방에서 이루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참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참 목사의 설교를 사모하며 명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박무수 목사는 동방의 독수리가 참 목자 - 물론 자기 자신 - 를 가리킨다고 영해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영해의 대가입니다. 그의 4단계 회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입었던 옷을 로마 병사들이 4조각으로 나눈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

10) [http://www.church.or.kr/board/board\\_view\\_01.asp?brdid=20&idx=1069](http://www.church.or.kr/board/board_view_01.asp?brdid=20&idx=1069)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4조각으로 나뉘었으니 무조건 4단계 회개가 필요하다고 영해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체계를 영해 체계라 합니다. 이런 해석 체계에서는 교주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이 곧 그 말씀의 확고부동한 해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국내 자생 사이비 교주들은 성도들의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 ‘동방’이 나오는 구절을 찾고는 문맥에 상관이 없이 그것을 한국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만든 집단이 바로 동방의 독수리가 임하는 곳이요, 거기에 속한 신자들이 14만 4천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워낙 유명해져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김대호라는 작가가 <동방의 독수리>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것은 안철수를 연상케 하는 18대 대통령 안철주를 주제로 한 미래소설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한민족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의 후예로서 미래에 동방의 독수리로 세상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는 성지 중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신앙의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고 지중해 서편에서 동방으로 이동해 온 위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 동방의 독수리는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문자 그대로 풀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서 동쪽을 뜻하는 east라는 단어는 세 군데(사41:2; 43:5; 46:11)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43:5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씨를 동쪽에서 데려오신다는 말이므로 이 주제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나머지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왕들을 먼지같이 그의 칼에, 쫓겨 가는 지푸라기같이 그의 활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되 심지어 자기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나니(사41:2-3)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사46:11).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후에 그들을 해방시킬 사람을 동쪽의 메대/페르시아에서 세우려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사41:2~3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44:28-45:3에서 고레스가 바로 그 사람 즉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일으키실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46:11에서 다시 한번 고레스를 가리키며 동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메대/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에 있고 또 살짝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41:25에서 동일하게 고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은즉 그가 오리라.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회반죽 위에 임하듯,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하리라(사41:25).

그러므로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이사야서 말씀은 한국의 이단 교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위치한 메대/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것 이외의 다른 해석은 사적인 해석이요, 비유 해석이며 영해의 더러운 산물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동방의 독수리는 바르게 된 성경에서는 '동쪽에서 오는 굶주린 새'로 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새는 까마귀도 될 수 있고 육식을 하는 새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새가 꼭 독수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명백히 개역성경은 이것을 오역하였습니다.

영어 KJB와 ASV는 이 단어를 'a ravenous bird'(굶주린 새)로 번역하였고, NKJV, NASB, NIV와 RSV는 'a bird of prey'(희생물을 먹는 새)로 번역하였습니다. 어떤 역본도 개역성경이 독수리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를 독수리 즉 eagle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하면서 언급한 출19:4와 신32:11은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국어를 제대로 보지 않고 무지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유로, 은유로 풀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독수리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독수리처럼 일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한 대한성서공회는 개역개정판을 내면서 독수리를 '사나운 날짐승'으로 바꾸었고 그 결과 '동방의 독수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던 이단들에게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개역성경만 고집하고 성경을 바꾼 성서공회를 향해 불평을 제기합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독수리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같이 바르게 번역된 역본으로는 자기들의 영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뿐만 아니라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시록 7장 48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십사만 사천이더라.

5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8 스블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라.

4절이 말하듯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환난기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을 가리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까요? 개신교 내에 천주교에서 전수받은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면 이들은 곧바로 영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등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의 14만 4천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면서도 육체를 입고 영생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는 미국, 영국, 한국 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때 영국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에는 앵글로 색슨족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2지파’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런 사상이 넘어간 뒤에는 이방인(미국인)이면서도 유대인 행세를 하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이리다가 이런 부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는 한민족이 혹은 한민족의 어떤 종교 지도자가 동방의 독수리로 둔갑하고 그런 단체에 속한 자들이 14만 4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중 극단적인 이들은 심지어 구원받으려면 구약의 율월절을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 비유 해석 즉 영해(靈解)의 추잡한 쓰레기이며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런 데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해의 근원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를 확립해 준 어거스틴과 그의 교리를 그대로 차용한 칼빈이므로 우리는 어거스틴 주의와 칼빈주의를 경계합니다. 둘 다 교회의 세상 정치를 위해 성경을 왜곡한 사람들의 틀린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단 종파들이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은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종파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주장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경계하며 주어질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마25:13).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은 거의 다 기독교회의 성직자 혹은 광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성경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경전으로 삼아 기성 교인과 불신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들만의 집단을 형성하고 반사회적이며 비윤리적인 생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음으로써 이들의 미혹에 대항하며 현혹되지 말고 미혹된 자들을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사이비 이단 종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무천년주의를 타파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가 도둑질하기 위해 영해/비유 해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잔혹한 마귀의 한민족 선민사상과 결합되어 한국에서만 가능한 종말론 사이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존해 주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해석으로 바르게 진리 위에 서서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맡은 바 책무를 다 감당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교리의 정립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힘써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리 같은 것은 성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교리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며 이성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자녀 된 우리 또한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올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때가 이를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이미 경고해 주었습니다(딤후4:3-4). 지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리를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교리를 바로 알려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써도 해석 체계가 바르지 못하면 바른 교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 체계는 크게 문자적 해석 체계와 영적/비유적 해석 체계가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 체계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의 모든 단어를 문맥에 따라 읽고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체계를 따르면 성경이 일관성을 갖게 되고 대부분의 독자들이 거의 동일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비유적 해석 체계를 견지하면 해석자에 따라 성경의 단어들도 달리 해석되므로 궁극적인 결론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됩니다.

신학적 용어로 전자의 해석 방법은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하고 후자는 언약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소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해석 방법이고 후자는 천주교와 또 장로교 같은 개신교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언 부분에 가면 그 차이가 너무 커서 한쪽이 다른 쪽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석 방법에 따라 성도들의 교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적인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라. 그러므로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 차이점 인식

하나님은 변치 않고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본래 그분의 모습과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걸쳐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여러 시대의 여러 사람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방식이 바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공활을 베푸사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영원을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도 달랐습니다. 노아와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룬 방식도 달랐습니다. 노아의 의무는 방주를 짓는 것이었고 수백 년 뒷사람인 솔로몬의 의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 계시되는 진리의 정도 차이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일시에 다 주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다윗에게는 더 많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마13:17).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진리가 계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16:12).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갈1:11-12; 엡3:3-5 참조).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죽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요한은 이것을 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계1:1-3, 9-12 등)

물론 이 같은 진리의 계시 방식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당신에게 필요한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한 번에 모든 진리를 다 알려 주십니까? 아니면 차츰차츰 알려 주십니까?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젓'이 필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단단한 음식과 고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벧전2:2; 고전3:1-2). 초신자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모두 받는다 해도 그것을 소화해 내지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은 아직 기하학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하학은 나중에 배우고 먼저 더하기와 빼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이른바 성경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성경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약 1600년이라는 기간에 - 주전 1500년경에서 주후 100년까지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가 점진적으로 진보되는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교회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도 성도들에게는 신약성경이 - 심지어 복음서 한 권도 -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이고도 진보적으로 계시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성경을 한 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아담: 제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성경 같은 건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17:1; 18:1 등).

모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윗: 제 성경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기, 사사기 그리고 제가 기록한 시편들이었습니다.

에스라: 제게는 대부분의 구약성경이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 제가 소유했던 성경은 전체 구약성경이며 신약성경은 없었습니다.

바울: 저는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저는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구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에는 다윗 시대의 성경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 몇 가지 명백한 차이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공훈과 은혜를 베푸셨으며 사람과 놀랍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경륜(세대)에 걸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엡2:8). 율법 이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창15:6)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롬4:3). 율법 시대에 살던 다윗도 그렇게 구원받았고(롬4:6) 신약시대의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롬4:5)! 노아, 이사야, 베드로, 바울 등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값없이 부어 주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과 호의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세대주의는 결코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은혜에 행위를 더해 구원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속에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시대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 혹은 각 시대를 경영하시는 -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에 갈 때 어린양을 가지고 갑니까? 어린양을 가지고 가서 당신의 죄로 인한 희생물로 그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까?(레3:7; 4:32; 삼상7:9 참조)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들처럼 짐승을 희생물로 드립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은 짐승을 희생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런 경우도 고려해 봅시다. 오늘날 토요일(일곱째 날)에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까?(출35:2 참조) 실제로 토요일에 나무 가지를 줍다가 죽은 예가 민수기 15장 32-36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불린 특별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입니다 (벧전2:9; 계1:6).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부모가 아기에겐 할례를 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부모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유대인 아이의 부모에게 할례는 필수였습니까? 선택이었습니까?(창17:10-14 참조)

아담이 살았을 때는 먹어서는 안 될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창2:16-17).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먹어서는 안 될 열매 곧 ‘금단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루신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다른 신자들과 함께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까? 솔로몬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16:15)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차이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시대에 속한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시대마다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7절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늘의 왕국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보면 부활 이후에 복음 선포 대상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도 때가 바뀌자 -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바뀌자 - 내용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 경륜 전후의 차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각 시대마다 핵심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놀라운 변화와 차이를 일으켰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건들이 있고 이것들의 앞뒤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사람의 타락(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 노아 시대의 대홍수
- 바벨탑 심판
- 아브라함을 부르심(창12)
- 율법 수여(출19-20)
-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 성령 강림(행2)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계19)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있을 천년왕국 시대를 살펴봅시다. 먼저 천년왕국 시대에 사는 짐승들을 생각해 봅시다(사11:6-9). 그때가 되면 짐승들의 습성이 바뀝니다. 사자 같은 육식성 짐승이 채식을 합니다. 현 세상에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마24:6-7).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미4:3). 거기서는 다시 전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에 대해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막16:15 등). 그런데 과연 왕국 시대에도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이사야 11장 9절 등은 이런 일이 필요치 않음을 보여 줍니다. 스가랴 13장 3절을 보면 이때에 대언을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즉 대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세대주의자란 성경을 믿고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이 중요한 차이점들을 인식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 경륜/세대의 뜻

‘경륜/세대’ 혹은 ‘경영 체계’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dispensation’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라틴어 별게이트 성경으로 옮기면서 사용한 ‘디스펜사티오’(dispensatio)라는 라틴어에서 나와 영어로 정착된 말입니다. 이 라틴어 동사는 ‘무게를 달아서 나누다’ 혹은 ‘배분하다’란 뜻의 복합어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이 단어의 의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이 들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1. 나누어주거나 배포하는 행위
2. 행정을 보거나 지휘를 하거나 혹은 관리를 하는 행위 혹은 물건들을 주거나 운영하는 체계
3. 어떤 요구 조건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분배해 주는 행위

이 단어의 용도를 신학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위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dispensation’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세대: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 특정한 민족이나 기간의 필요에 특별히 부응하는 단계…또한 어떤 체제가 널리 보급된 시대나 기간

스코필드(C. I. Scofield)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경륜에 대해 내린 정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 유명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경륜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경륜’과 ‘시대’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는 ‘관리하다’, ‘규제하다’, ‘집행하다’, ‘계획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의 일을 나누다, 할당하다, 집행하다, 혹은 관리하다’를 뜻하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oikonomia)와 영어의 ‘economy’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이코노미아’는 다음과 같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oikos = 집(house)
2. nomos = law(법)

따라서 이 단어는 ‘한 집안의 법’ 혹은 ‘집안 법’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족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집안의 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에는 구성원이 따라야 할 ‘집안 규칙’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에게 부여한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까? 규칙을 어겼을 때 꾸지람을 듣지는 않습니까?

‘dispensation’과 같은 어원을 가진 그리스어는 또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청지기직’(stewardship)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보면, 경영 체계를 집행하는 관리자(오이코노모스)는 재산의 청지기나 관리자 혹은 회계를 맡은 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륜/세대’ 혹은 ‘경영 체계’란 의미의

‘dispensation’의 중심 개념은 가정의 일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먼저 ‘청지기직’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 A. 청지기직

청지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 - 물건이나 재산 - 를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지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청지기를 둘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유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말 10필과 보트 8대, 20만 평의 땅과 500두의 소, 3개의 풀장, 25대의 자동차, 8대의 트럭 그리고 하나의 유전(油田)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을 잘 꾸리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돌보는 책임을 맡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청지기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것에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청지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신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은 창세기 3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6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는 이 사람의 손에 맡겨졌습니다(창39:4, 6).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관리했으며 그의 주인인 보디발은 자기 집과 자기 재산이 ‘신실한 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그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자 그 집의 소유주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의 관리인은 요셉이고 집의 소유주는 보디발이었습니다. 그 집은 분명히 보디발의 소유이지 요셉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 B. 특권과 책임

보디발의 소유를 관리하는 요셉에게는 특권과 책임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자는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돌보는 데 대한 책임과 특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어 주셨습니다(창12:1-3; 17:1-8). 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거룩한 율법과 명령들을 주셨습니다(출19-21장).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엡3장). 믿는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릴 권한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청지기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청지기직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멋진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아무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직장에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만 이 점포에서 일하면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것을 배우겠고 값진 경험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얻는 유익이 많을 것이며 시간에 따른 대가를 받습니다. 꾸준히 신실하게 일하다 보면 어느 날 승진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자리에겐 책임이 따릅니다. 고용주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게으르고 출근 시간에 지각하고 고객에게 불친절하다면 어느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점포의 주인은 당신이 신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맡은 것을 바르게 처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을 잘 처리했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칭지기직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맡기셨고 그것을 바르게 꾸려가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경륜/세대 요약

이제 다시 '경륜'이라는 단어를 요약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경륜'이라는 말은 '칭지기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경영 체계는 한 칭지기직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집주인

칭지기직이 있다면 집의 주인이나 소유주가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안의 법'을 세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의무와 책임, 특권을 규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집의 주인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히3:4 참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창14:19, 22).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며 머리가 되십니다.

### 2. 집

주인이나 소유주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인이 그 규정을 집행하고 권위를 행사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세상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거기 거하는 자들도 그러합니다."(시24:1; 창18:25; 출9:29 참조) 세상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은 자신의 뜻과 지혜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관할하십니다.

### 3. 칭지기

집주인과 집 말고 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칭지기입니다. 칭지기는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하고 집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칭지기는

어떤 물건이나 직무를 맡습니다(사도행전 17장 30절과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준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청지기가 ‘집안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곤경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곧 인류입니다(딤후1:7; 고전4:1-2; 벧전4:10).

이제 성경의 경륜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집주인: 살아 계신 하나님
2. 집: 세상
3. 집의 청지기: 인류

### 경륜은 여러 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집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안 규칙이 늘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일한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 각자에게 적용된 집안 규칙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집안 규칙은 베드로 시대의 규칙과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 규칙이 다르다면 경영 방식 혹은 경륜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A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B라는 사람의 집으로 일자리를 옮겨가면 B 집의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집의 규칙 중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가정부는 B 집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경륜이 단순히 ‘집안 규칙’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각 경륜에 단지 규칙만을 주시지 않고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다루어야 할 어느 정도의 진리도 주셨습니다. 규칙과 법에는 그것들에 상응하는 특권과 기회와 책임이 따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집안 규칙’을 말한다고 해서 각 경륜에 주어지는 규칙과 책임과 특권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는 규칙이나 특권이 있고 바뀐 것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화를 살펴봅시다. 김철수 씨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에게는 세 가지 ‘집안 규칙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세대 차가 나는 세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장남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맡겼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권뿐 아니라 장남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부과됩니다. 여기 김철수 씨 집안의 ‘세 가지 규칙과 특권’이 있습니다.

1. 열 살짜리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오후 8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 것
- 매주 용돈이 지급됨
- 숙제에 대한 규칙을 준수할 것
- 차를 모는 특권은 주어지지 않음 등등

## 2. 열다섯 살 먹은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오후 10시에 취침할 것
- 매주 막내보다 많은 용돈이 지급됨
- 숙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
- 아직 차를 몰 수 있는 특권은 없음 등등

## 3. 스무 살 된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취침시간에 대한 규정 완화
- 용돈은 없음 - 스스로 벌어서 쓸 것
- 졸업했기에 숙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운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주어짐 등등

세 아들에게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바뀌는 내용도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원리가 경륜에도 적용됩니다. 앞에 나온 동일한 아버지(김철수 씨)에게 다른 시기에 태어난 세 아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과 다른 때 태어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더해진 규정이나 책임이 있고 그대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기에 태어나 서로 다른 경륜에 살았던 세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 4. 노아 - 홍수 이후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창6:9)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히11:7과 비교)
-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창9:6)
- 짐승의 희생을 드림(창8:20)

- 안식일을 지키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 5. 다윗 - 모세의 율법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신8:1)
-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출21:12)
- 짐승의 희생을 드림(레1-5장)
- 안식일을 지키고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음(레12:3; 신5:12-14)
-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 6. 바울 - 교회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나 다윗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요일2:3-5)
-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롬13:1-4)
- 짐승 희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음(히10장)
- 안식일을 지키라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필요 없음
-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음(마28:19-20)

이처럼 세 가지 경륜 속에서 꾸준히 남아 있으면서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뀌거나 변화된 사항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경륜이나 청지기직이 바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규정이나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령 어느 경륜에서나 거짓말, 살인, 도둑질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륜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었습니다(히11장 참조). 즉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뀐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도움이 될 만한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200년 전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에 TV나 자동차, 전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생활환경이 오늘날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차하는 대신에 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옷을 빨기 위해선 세탁기 대신에 빨래판과 물, 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 편리한 자동온도 조절 장치만 맞추어 놓으면 되는 대신에 밖에 나가 장작을 구해다가 불을 때야 합니다(물론 오늘날에도 장작으로 난방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 살았다면

해야 할 일 즉 책임이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같은 것도 있겠지요. 가령 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는 모두 동일한 집안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같은 경륜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 규정과 권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바울, 요한도 같은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로마서에서 계시록 1-3장까지)에 그 규정과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에게 속한 동일한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같은 경륜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세대주의자란 어떤 사람인가?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청지기직을 이해하며 - 실로 하나님은 그에게 몇몇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셨다 -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모두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아볼까요? 세대주의자는 적어도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 1. 세대주의자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세대주의자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다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 방법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가령 다윗은 노아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고 있었고 바울은 다윗이 들어본 적도 없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고전적 세대주의자는 48쪽에 기술된 경륜 전후의 차이점을 인지하고는 다음 페이지의 표에 있듯이 대개 인류 역사에 일곱 가지 경륜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죄 경륜 전에는 영원 전 과거가 있으며 천년왕국 경륜 이후에는 영원 후 미래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각 경륜의 이름 옆에는 그 경륜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왕국 경륜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므로 없음).

각 경륜은 하나님이 독특한 경영방식과 특권을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물론 그 기간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각 경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규정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경륜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 경륜에 서보다 더 많은 진리의 빛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진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점진적으로 진보적으로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계시됨을 의미합니다.

### 〈고전적 세대주의의 일곱 경륜/세대〉

경륜	요약
(1) 무죄(아담)	무죄 경륜은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막을 내린다.
(2) 양심(에녹)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심 아래 살고 있다.
(3) 인간 정부 (노아, 홍수 이후)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 정부 아래 살고 있다.
(4) 약속(아브라함)	이 경륜 이후에도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갈3장).
(5) 율법 (다윗, 침례자 요한)	율법은 써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지만 십자가로 막을 내린다.
(6) 은혜(바울)	다른 경륜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때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증언된다(엡2-3장).
(7)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경륜에도 있었지만 왕국 경륜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 민족들을 치리하심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으로 이어진다.

## 2.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문자적’(literal)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과장 없이 혹은 상상하지 않고’라는 뜻을 지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가 읽은 단어들을 기본적으로도 평범한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특별하게 문맥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어의 숨겨진 뜻을 파헤치려 하거나 없는 뜻을 만들어 내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고쳐서 이해한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6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출20:11; 창1장).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때 6일은 그냥 6일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온 우주가 24시간의 하루가 여섯 번 지나면서 형성되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이 ‘6일 즉 여섯 개의 날들’을 문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창조의 날들은 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니라 ‘경륜’ - 긴 기간의 시간을 가리키며 이 경우 ‘날=경륜은 그 기간이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에 달합니다 - 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가 6개의 매우 긴 시대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즉 “날은 날이 아니라 매우 긴 시대를 의미한다.” 등).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다른 아닌 문자 그대로의 ‘6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계시록 20장입니다. 전반부의 2-7절을 읽어 보면 ‘천 년’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 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천 년은 그냥 천 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 년 동안 다스리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천 년에다 다른 의미를 붙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신문을 읽는 데 첫 면에 ‘부시 대통령 4일 예정으로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방문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거야. 중국도 실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일거야.” 이것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제쳐 둔 채 엉뚱한 의미를 취하면 당연히 말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중국’은 ‘중국’으로, ‘4일’은 말 그대로 ‘4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문자적인 방법이며 바로 이런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서 편지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친구에게서 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 전에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덕분에 이틀 동안 병원신세를 졌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겠습니까? 설마 ‘말’은 ‘코끼리’를, ‘다리는’ ‘머리’를, ‘이틀’은 ‘두 달’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친구가 ‘코끼리’를 말하고자 했다면 왜 굳이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 A. 간단한 규칙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접하는 단어들을 - 그것들의 정상적인 의미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 항상 문자적이고도 자연스러우며 평범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평범한 의미로 말이 잘 통한다면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의 ‘날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능히 우주를 6일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의 '천 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년'은 그냥 '천 년'일 뿐입니다.

물론 가끔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의 고유한 의미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들이 통과하는 실제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요10:1, 2, 7). 그렇게 이해하려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은 문을 통해 어떤 장소를 드나듭니다.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문을 열고 통과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다른 예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문자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며 제자들은 실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구원자와 그를 믿는 이들을 보여 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믿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즉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빵을 취하사 제자들에게 “반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6). 그리고 잔을 취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7-28). 그 빵이 정말 주님의 몸이었을까요? 그 잔이 실제 주님의 피였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실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으며 예수님도 이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며 말합니다. “이봐, 이게 내 아내야.” 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과연 한 장의 사진이 실제 자기 아내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은유 혹은 환유라 불리는 수사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는 실제 “이 사진에 내 아내의 모습이 있어. 내 아내 사진이지. 이 사진을 보면 내 아내를 떠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나의 몸을 나타내고 이 잔은 내 피를 보여 준다. 너희가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와 또 내가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고전11:24-25).

## B.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 생각에

성경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놔두고 거기 있는 단어에다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은 냇가에서 돌 다섯 개를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섯 개의 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돌은 용기를 상징하고, 둘째 돌은 믿음을 상징하며, 셋째는 힘을, 넷째는 승리를, 다섯째는 성공을 뜻합니다.”

과연 성경이 이 돌들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까? 돌은 그저 돌에 불과합니다. 이 돌 중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용기와 믿음을 겸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승리와 성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장(삼상 17장)을 읽고서 알게 된 내용이지 다윗이 집어든 돌들에서 추론해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어의 위치와 용례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어에다 이상한 해석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 3.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조심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살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유대인들)이 교회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수태가 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 속으로 태어났습니다(행2장). 그 이전에는 누구도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말합니다(롬9:4-5).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유대인’이라 불립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들을 통칭합니다. 즉 이방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입니다(엡2: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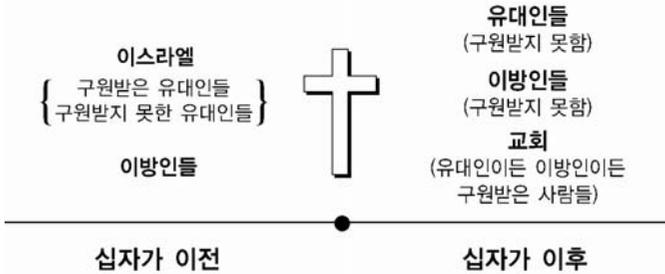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유기체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사야는 모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교회의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구원받아 성령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고전12:13).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이 점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신문에 철수가 부산행 무료 항공권을, 영희가 제주행 무료 항공권에 당첨되었다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영희가 부산에 가게 됐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일어나겠지요? 성경을 잘못 읽을 때에도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됩니

## 교회 시대 사람들 구분

(고전10:32)



다.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 각각을 향해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임의로 취하여 그것들을 교회를 위한 것으로 가르치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철수의 부산행 티켓을 영희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롬11장과 비교).

### 결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문맥에 따라, 수신자에 따라 바르게 구분해서 읽으면 누구라도 쉽게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칼빈주의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든 신학 체계를 먼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신학 체계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들이 없이는 성경을 그들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국어를 배우듯이,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그 안의 내용과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사실 세대주의라는 말 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 사람이 만든 신학 체계가 아니라 누구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보편적인 성경 읽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내게 주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모든 계획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 눈으로 관통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정상적인 해석 체계를 통해 바른 교리와 실행이 이 땅에 정착돼서 천주교의 이스라엘 대체 이단 교리와 가정을 망치는 '소종파들'(cults)의 각종 이단 교리들이 근절되면 좋겠습니다.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그리스도예수안에 성경 및 서적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으로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으로, 클라렌스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구성되어 성경 신자들에게 필요한 필수 지식을 담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책입니다. 세대주의(경론)에 관한 이해를 돕는 별도의 책이 합본돼 있습니다.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으로 오인하는 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각기 조금씩 다른 내용이지만 세 권 중 한 권만 보셔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겐,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  
'역사' 는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정, 번역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줍니다. '답변서' 는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혀 줍니다. '입문서' 는 길라잡이 역할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이들의 생생한 체험담도 있습니다.



### 예수님의 피 바로알기 알 레이시 외

알 레이시 목사의 저서와 의사인 엠말 디한 박사(울법인가, 은혜인가.의 저자)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겨 있는 책으로, 피의 성부와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입니다.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의 피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증거합니다.



### 천국과 지옥 바로알기 알 레이시

알 레이시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풀립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는 동시에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천사와 UFO 바로알기 정동수

날개 달린 천사, 아기 천사, 여자 천사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이 땅속에서 벌이는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참된 길을 알려줍니다. 체현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수많은 한글과 영어 성경의 역본들을 여러 차례 읽으며 철저히 비교분석한 책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무오성과 이를 단어로 번역한 흥정역이 가장 정확한 한글 성경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 정동수 감수

마지막 때의 필수 지식을 담은 것으로, 성경 전체의 지나간 역사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현 시대를 분별하고, 후거 전에 반드시 있을 배교의 현주소를 알아보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환난 전 후거의 복된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 흥정역 한영대역 및 스테디 바이블

다른 모든 한국어 성경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입니다.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언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하며 볼 수 있으며, 스테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사(032-872-1184) 및 온라인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총판 : 생명의 말씀사)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